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4.347>

JCCT 2024-7-38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사회 연계사업 현황에 관한 연구 : 2018년~2022년 사업 현황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Community-Linked Projects in the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 Focusing on the Current Status of the 2018~2022 Projects

김경미*

Kim Kyoung Mi*

요약 본 연구는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사회 연계사업의 실적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지역사회 중심이 되는 육아지원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운영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난 5년간(2018-2022)의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연계사업 관련 실적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협약 내용은 교육 및 정보지원을 위주로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과 협약한 실적이 많았다. 둘째, 지역사회 내 기관 간의 협력 내용은 주로 교육과 업무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지원 내용의 대부분은 회의를 통해 진행되었다. 셋째, 개인의 재능기부는 행사와 업무지원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며, 장난감 등 세척 분야에서 자원봉사활동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지역사회 연계사업에 대한 제언점을 도출하였다.

주요어 :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사회 연계사업, 사업 현황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pose operational directions for establishing Support Centers for Childcare (SCC) as central institutions in local communities by examining the performance status of community-linked projects of SCC. To achieve this, an analysis of performance related to community-linked projects was conducted focusing on SCC activity reports from 2018 to 2022, encompassing the past five years. Upon examination of the analysis results, several findings emerged. Firstly, there was a substantial number of achievements with non-profit organizations and public institutions as the types of institutions involved in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with a predominant focus on educational and informational support within the MOU contents. Secondly, collaboration among institutions within the local community primarily centered around education and administrative support, with a significant portion of support activities being conducted through meetings. Thirdly, individual volunteer contributions were prevalent in events and administrative support, while volunteer efforts were notable in areas such as cleaning toys. Based on these findings, recommendations for community-linked projects of SCC were derived.

Key words : Support Centers for Childcare (SCC), community-linked projects, current status

*정희원, 서울신학대학교 아동보육학과 조교수 (단독저자)
접수일: 2024년 5월 12일, 수정완료일: 2024년 5월 30일
게재확정일: 2024년 6월 16일

Received: May 12, 2024 / Revised: May 30, 2024

Accepted: June 16, 2024

*Corresponding Author: kkm2714@stu.ac.kr

Dept. of Childcare and Education, Seoul Theological Univ,
Korea

1. 서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사회의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써 지역 실정에 기반한 다양한 국가 보육 및 양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르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에 관련한 정보 수집 및 제공, 상담 등의 기능을 담당하며, 지역사회 내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 보호자의 가정양육지원을 위한 다양한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다. 2023년 3월 1일 기준으로,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는 130개소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센터의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양육 관련 기관 연계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 요구와 특수성을 반영한 육아지원 서비스 활성화, 센터 간 연계 협력체계 강화를 전략과제로 삼고 있다. 이러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과 운영목적을 고려할 때, 센터는 지역성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주요 사업은 어린이집 지원사업, 가정양육 지원사업, 기타 사업으로 구분되며, 지역사회 연계사업은 기타 사업에 포함된다. 지역사회 연계사업이란 양육자와 보육교직원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특성화 사업 및 유관기관 연계사업을 말한다[1]. 최근 공시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3년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 가족센터, 보건소 등 기관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양육 인프라·자원 연결망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2]. 이를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의 다양한 보육 환경과 수요,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사업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센터들 간의 유기적인 상호 협력이 요구된다[3]. 이러한 정부의 육아 정책지원 방향은 학계에서도 꾸준히 다루어지고 있다. 2016년에 지역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을 조사한 연구[4]에서는 수요자 대비 육아지원환경의 공급 수준을 평가하고 중앙 및 지방 차원에서 협력적인 육아지원환경 통합서비스 조직 등의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프로그램과 공간구성과 관련해 국내외 사례를 비교한 연구[5]에서는 어린이집, 부모, 영유아, 지역사회연계 및 관리지원을 위한 집중적인 고려가 필요함을 보고하였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사회 연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은 주로 센터의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사업에 대한 교사와 부모 인식 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3][6][7]. 이를 통해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에 대한 수요자 요구를 파악하는 것은 도움이 되겠지만, 정부의 육아 정책을 구현하는 매개 역할을 하는 센터의 지역사회 연계현황을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서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다양한 육아지원 환경에 대한 영향력을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다[4]. [8]의 연구에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양육지원 사업 운영에 있어 지역연계 및 협력 상황이 미흡함을 지적하였고, [9]는 연구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역성을 충분히 반영한 내실 있는 사업 운영을 위해 다양한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양육 네트워크 구축 및 단계적 협력체계 마련이 시급함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관할하는 지역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센터 사업에 밀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인적·물적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연계하는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10].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주요 사업 운영에 있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육아지원서비스 전달체계로서 역량을 갖추기 위해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서비스를 위한 허브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10][11]. 또한, 지역에 설치된 육아지원 네트워크 형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들은 지역 인프라에 대해 서로 간 정확하고 세밀한 정보를 수집하고, 지속적인 인적 교류가 필요하다[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지역사회 연계사업의 운영 기능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최근 5년간 수행된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지역사회 연계사업 실적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지역연계사업의 운영 방향성을 제안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협약 현황(기관 유형, 협약 내용)은 어떠한가? 둘째,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관 간 지역사회 연계 현황(협력 내용 및 지원 내용)은 어떠한가? 셋째,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개인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 현황은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분석 대상

본 연구에서는 지난 5년간(2018-2022)의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 내 ‘지역사회 연계사업’ 실적을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이 보고서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자료실[13]에 공개된 자료로, 전국 센터의 공식적인 지역사회 연계사업 실적 집계자료이다. 부가적으로 지역사회 연계사업의 세부 실적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 및 시군구 단위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관련 뉴스 기사를 참고하였다. 다음 표 1은 최근 5년(2018-2022)간 이루어진 지역사회 연계사업(업무협약, 기관 간 연계,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 실적이 취합된 참여센터 현황이다. 참고로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지난 5년간 연도별 설치 누적 현황은 2018년 102개소, 2019년 113개소, 2020년 120개소, 2021년 125개소, 2022년 129개소이다.

표 1. 참여센터 현황
 Table 1. Current Status of Participating Centers

구분	업무협약	기관 간 연계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
2018	96	89	84
2019	100	90	84
2020	90	101	70
2021	85	107	107
2022	98	99	63

2. 분석 방법 및 기준

본 연구에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발간된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연계사업의 5년간 추이를 분석하였다. 먼저, 연도별로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지역사회 연계 실적을 집계하였고, 이를 통해 업무협약, 기관 간 연계,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 등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참고로 재능기부 실적 중 정보제공 실적은 2022년에 처음 집계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도 및 시군구 센터별로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안내된 자료는 2018년도 사업결과보고서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2018년도를 기준으로 각 센터의 세부 실적을 추가로 검토하였다. 또한, 지난 5년간의 지역사회 연계사업 중에서 전후 연도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 및 하락한 경우, 사업결과보고서 내 <부록> 지역사회 연계 실적 총괄표를 참고하여 지역센터별 실

적을 함께 검토하였다. 끝으로 전반적인 경향을 분석한 결과, 지역사회 연계사업의 전반 실적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상승 추이를 보이다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에는 전체적으로 급격한 하락 추이를 보였다. 이후 2021년부터는 대부분의 사업실적 현황이 상승 추이를 나타냈다.

III. 연구 결과

1.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협약 현황

1) 업무협약(MOU) 현황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협약 기관 유형은 학교, 상담 관련 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언론기관, 어린이집, 기업, 기타로 구분한다. 최근 5년간의 업무협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표 2), 비영리법인(992건)과의 협약체결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복지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과의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14]. 다음으로 공공기관(831건)과의 협약실적도 높은 편이다. 예를 들어, 보건소, 소방서, 경찰서 등과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공공서비스와의 접근성을 높였다. 이어서 학교(377건), 기업(347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기업과의 업무협약 실적은 2021년 이후 경미하게 하락 추이를 보였는데, 이는 향후 기업과의 협력 유지 및 새로운 기업 발굴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언론기관과의 협약도 매우 낮은 실적을 보였는데, 이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활동 홍보 및 대중 인식 제고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끝으로 기타 유형의 실적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실적 관리와 분석에 한계가 있기에, 기타 유형을 재분류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표 2. 업무협약 현황
 Table 2. Status of Memorandum of Understanding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학교	110	140	44	41	42	377
상담기관	87	88	22	28	30	255
공공기관	308	328	66	55	74	831
비영리법인	345	398	79	85	85	992
언론 기관	5	5	2	3	3	18
어린이집	60	78	40	14	38	230
기업	124	138	28	39	18	347
기타	126	147	36	49	45	403
계	1,165	1,322	317	314	321	3,4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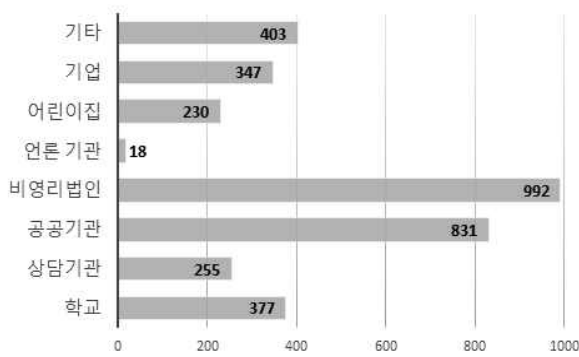


그림 1. 업무협약 현황 통계 차트
Figure 1. Statistics chart of the status of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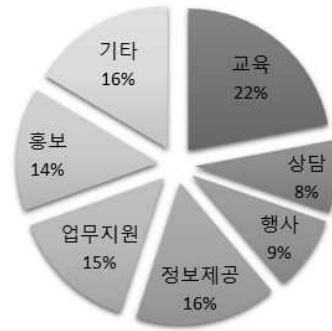


그림 2. 업무협약 내용별 현황 통계 차트
Figure 2. Statistics chart of status by contents of memorandum of understanding

2) 업무협약(MOU) 내용별 현황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협약 내용은 교육, 상담, 행사, 정보제공, 업무지원, 홍보, 기타로 구분한다. 최근 5년간의 업무협약 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표 3, 그림 2), 교육(2,077건, 22%) 관련 내용을 담은 협약이 가장 많이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센터 수요자를 대상으로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정보제공(1,524건, 16%) 관련 협약체결도 높은 편이다. 이는 센터가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해 수요자에게 최신 육아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어서 업무지원(1,369건, 15%), 홍보(1,321건, 1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기타 실적이 전체의 16%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각 지역센터의 특성에 맞춘 다양한 협약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하위 실적을 나타낸 상담과 행사는 서비스 확대와 홍보 전략 강화를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표 3. 업무협약 내용별 현황

Table 3. Status of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y Contents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교육	709	794	196	181	197	2,077
상담	255	280	74	81	86	776
행사	291	313	67	67	67	805
정보제공	506	593	137	126	162	1,524
업무지원	420	496	132	149	172	1,369
홍보	447	510	117	117	130	1,321
기타	517	581	152	146	152	1,548
계	3,145	3,567	875	867	966	9,420

2.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관 간 지역사회 연계 현황

1) 협력 내용 현황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기관 간의 지역사회 연계 협력 내용을 분석한 결과(표 4), 교육(20,317건) 관련 협력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센터의 주요한 역할 중 하나가 교육프로그램 제공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업무지원(12,912건) 관련 협력 내용도 높은 편이다. 이는 센터가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에 행정적 지원과 운영적 지원을 교류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어서 상담(12,251건), 행사(12,085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교육 및 상담과 관련한 협력 내용은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약 2.5-3배 수준으로 높은 상향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추세는 서울, 경기, 충북 지역권 센터에서 최대 2.5배 이상 실적이 상승한 영향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1][15].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 내 지역사회 연계 실적 총괄표를 살펴본 결과, 시도에서는 충북센터, 시군구에서는 중랑구센터의 상담 실적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충북센터의 경우, 2021년부터 관산학 연계사업으로 영유아 발달 상담 챗봇 서비스를 개발한 사업을 진행하였고[16][17], 중랑구센터는 2021년에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최초로 가치기움 사업을 시작하며 취약계층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와 연계하여 상담 등 맞춤형 육아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18]. 한편, 상담 관련 실적은 업무협약 내용별 현황에서는 하위 실적으로 나타났으나, 기관 간의 협력 내용 현황에서는 세 번째

로 높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상담 분야가 중요하고 필요한 영역임을 시사하며, 협약체결에 따른 실질적인 협력과 지원이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듯 상담 관련 서비스는 영유아 가정에 중요한 지원 요소이고, 향후 다양한 상담 사업을 개발하여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필요를 시사한다.

표 4. 협력 내용

Table 4. Contents of Cooperation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교육	5,667	4,746	1,885	4,445	3,574	20,317
상담	2,542	1,931	1,051	3,672	3,055	12,251
행사	3,203	330	152	246	8,154	12,085
정보 제공	2,370	1,723	1,627	2,367	2,697	10,784
업무 지원	1,115	2,705	2,674	2,343	4,075	12,912
홍보	3,287	505	266	383	420	4,861
기타	2,729	1,708	1,097	2,866	2,059	10,459
계	20,913	13,648	8,752	16,322	24,084	83,669

2) 지원 내용 현황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기관 간의 지역사회 연계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내용은 회의와 소모임으로 구분한다. 최근 5년간의 지원 내용을 분석한 결과(표 5), 회의(2,329건)를 통해 지원한 실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펜데믹 시기인 2020년에는 전반적으로 다소 주춤했던 실적이 2021년에 회의가 1.6배, 소모임은 2배 이상 상승 추이를 나타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2020년에는 활동이 다소 줄었지만, 2021년에는 회의와 소모임 모두 활발히 이루어진 것을 보여준다. 한편, 기타 실적(18,620건)은 회의와 소모임 실적을 합친 실적보다 약 7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기타 실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 파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최근 5년간의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1][14][15][19][20], 기타 실적은 센터에서 지역사회 연계사업 추진을 위해 단순 공간대여, 국가 근로 및 산학 연계, 노인 일자리 인력 창출, 기관 간 업무 연계, 육아네트워크 형성 지원, 센터 간 벤치마킹 등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듯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회와의 사업 연계를 추진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표 5. 지원 내용

Table 5. Support Contents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회의	464	428	343	554	539	2,328
소모임	39	28	58	122	79	326
기타	5,104	3,687	1,647	3,388	4,794	18,620
계	5,607	4,143	2,048	4,064	5,412	21,274

3.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개인 재능기부 및 자원 봉사 현황

1) 재능기부 현황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 개인 재능기부 유형은 교육, 행사, 정보제공, 업무지원, 기타로 구분한다. 최근 5년간의 개인 재능기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표 6), 교육(1,713건) 관련 실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센터에서 교육 활동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며, 재능기부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이 보유한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행사(1,207건), 업무지원(933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역사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구성원들 간의 유대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재능기부 형태와 활용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기타 실적(1,402건)은 전체 재능기부 실적 중에서 두번째로 높게 나타나 향후 보다 세부적인 유형 구분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14]를 살펴보면, 일부 센터에서는 지역사회 연계사업으로 ‘재능기부를 활용한 특별활동비 없는 어린이집’, ‘지역사회 연계형 어린이집’ 등을 운영하며, 어르신, 도서관, 공공기관, 교육 지원, 생태 연계형 등 재능기부 활용 어린이집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6. 재능기부

Table 6. Donating Talent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교육	689	559	99	175	191	1,713
행사	17	532	1	3	654	1,207
정보제공	-	-	-	-	37	37
업무지원	202	685	19	0	27	933
기타	671	165	273	157	136	1,402
계	1,579	1,941	392	335	1,045	5,292

2) 자원봉사 현황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 자원봉사 유형은 대여사업, 센터운영, 장난감 등 세척, 기타로 구분한다. 최근 5년간의 자원봉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표 7), 장난감 등 세척(59,663건) 실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센터운영(9,750건), 대여사업(3,286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22년 기준으로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 사업에 참여한 63개소 센터의 부속사업장에서 장난감 및 도서대여, 놀이 및 체험활동 등의 사업을 통해 장난감 등 세척을 위한 자원봉사가 빈번히 요구됨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장난감 등 세척을 위한 전담 인력의 부족 문제나 작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해를 거듭할수록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의 자원봉사 수요가 지속 요구되고 있어 코로나19 이전만큼의 자원봉사 인원만큼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한 자원봉사 모집이 시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7. 자원봉사
Table 7. Volunteer Work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대여사업	1,605	680	420	291	290	3,286
센터운영	3,069	4,068	744	888	981	9,750
장난감 등 세척	17,936	18,544	6,808	7,561	8,814	59,663
기타	6,284	7,072	1,242	2,558	4,545	21,701
계	28,894	30,364	9,214	11,238	14,630	94,400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최근 5년간의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지역사회 연계사업 실적 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지역 내 육아지원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역연계 사업의 운영 방향을 제시할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첫째,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주로 비영리법인과 공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맺고 있으며, 협약 내용은 교육이나 정보지원에 중점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협약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언론기관, 상담기관, 기업 등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여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확장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업무협약의 다양성을 고려하고, 협약의 유형을 발굴 및 개선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협약 내용의 실질적인 수행 및 확장을 위해 실무자 간의 우호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교류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센터 내 사업 담당자의 인식이 매우 중요한데, 센터에서 지역사회 연계사업이 다른 사업에 비해 중요도가 높지 않고,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운영자 의지가 중요하기에 이들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12].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들은 지역사회 내에서 세밀한 밀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갖추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21]. 유사한 사례로 보육 및 교육 분야에서도 현장 교사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정보 부족, 협조체계 부족으로 인해 지역연계 활동을 실시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22][23].

이에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중간 매개 역할을 하는 센터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사례공유 및 지역사회 협력에 관련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지역연계 전달체계를 갖추고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역사회 연계 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24]. 한 예로,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센터와 기관 간의 협력 사례를 조사하여 각 사례의 성공 요인과 도전 과제를 분석하는 연구 모임을 운영할 수도 있겠다. [25]는 연구에서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효과적인 교육 거버넌스 구축 방안으로 공동의 목표와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공론장 마련, 민관학 협의체와 중간 지원 조직 구성, 연계성과 활동성이 높은 지역활동가 발굴 및 지원, 공동사업 기획 및 운영을 제안한 바 있다. 끝으로, 향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유사 실적 통합과 협력 기관 발굴을 위해 업무협약 실적 취합 시 기관 유형 구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지역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 연구를 통해 육아지원환경 관련 정책 영역(영유아 교육·보육, 종합육아지원서비스, 돌봄지원, 문화인프라, 보건·의료서비스, 안전관리·보호)을 구분하였는데, 이 분류 체계를 참고하여 보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역사회 기관 간의

협력은 주로 교육이나 업무지원, 상담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26]에서 부모들이 정보제공, 교육, 상담 서비스를 많이 이용한다는 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27]에서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이해하고 적절한 양육에 대해 도움받기 위해 육아 상담을 요구한다는 결과와도 연관된다. 세부적인 실적 분석 결과, 서울, 경기, 충북지역 센터에서 기관과의 협력 실적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 지역들이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높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 상황이나 지역 특성으로 인해 센터 간 운영 편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내 육아지원기관 간의 통합적 서비스 운영을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하다[28].

또한, 지역사회에 맞는 영유아보육과 가족 지원을 위해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간의 체계적이고 협력적인 네트워크 마련이 필요하다[3]. 이를 위해 지역 유관기관과 전문화된 업무 연계가 필요하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 관련 지역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해야 한다.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다양한 기관들이 협력한다는 것은 지역 맞춤형 육아지원서비스 구현을 위해 보육 인프라 구성과 네트워크 구축으로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29][30].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육아지원 네트워크 형성의 중심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사회 내의 유용한 기관과 협력망을 구성하고[31], 지역 간 정보교환의 중심점 역할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32]. 이와 함께,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역사회 간 협력 관계의 효과와 지속성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해 적절한 지표를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기관 간 업무 추진을 위한 지원 실적은 대체로 회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지속 늘어나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 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정기적인 예산 배정과 지역 커뮤니티 운영 활성화의 필요성을 부각한다. 이를 통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지역사회의 물적, 인적 인프라를 교류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의 개인 재능기부는 주로 행사와 업무지원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전문가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사회에 자신이 가진 특기나 능력을 기부하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

다[33].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과 부모가 연계된 연구[34]를 살펴보면,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모와 협력하여 발전적인 방식으로 부모교육을 실행함으로써 부모의 자발적인 변화를 유도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부모들이 서로 소통하고 상담하는 기회를 통해 육아 정보를 얻고 배움을 얻을 수 있고, 더 나아가 부모의 변화와 자신감 향상으로 이어져 자녀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한편,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한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연계된 시스템이 중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잠재적인 재능기부자들이 자신의 작은 능력을 자원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35]. 따라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비롯한 육아지원 네트워크 내의 기관들은 지역사회를 위한 재능기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세부조사[35]와 민간기업의 참여 확대를 통한 정부 및 민간 협력이 필요하다[36]. 이러한 노력은 보육기관에서 다양한 분야의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7].

다음으로 자원봉사 실적은 장난감 등 세척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사업 과정에서 장난감 등 세척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인적 인프라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기존 연구[37][38]에서 자원봉사자와의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원과 연결하는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과도 동일한 맥락이다. 코로나19 전후로 해당 분야의 실적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자원봉사 및 재능기부를 통한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과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장난감 도서관을 이용하는 부모 요구를 조사한 연구[39] 결과에서도, 효율적 사업 운영을 위해 자치단체나 관련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향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각 사업영역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을 분석하여 자원봉사 배치의 우선순위와 봉사자를 위한 혜택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다양한 분야의 인적자원을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력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자원봉사 및 재능기부의 참여와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성과를 제고할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V. 제 언

본 연구의 논의 및 결론을 토대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최근 5년간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를 기반으로 업무협약, 지역사회 연계,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 현황을 분석하였는데, 지역사회 연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보다 더 넓은 범위의 관련 요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지역사회 특수성과 정부의 육아 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대응하기 위해 지역연계 사업의 방식을 수정 및 개선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시도 및 시군구 단위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된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 및 연계사업 사례를 비교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성을 반영한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는 지역사회 연계사업 운영 모델을 개발 및 확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후속 연구를 통해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역사회 간의 협력이 강화되고 보다 발전적인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entral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Report on the results of the 2018 National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Project,” Central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2023.
- [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4th Basic Plan for Mid- to Long-Term Childcare (2023-2027),”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2.
- [3] E.M. Jang, J.H. Park, S.W. Cho, J.O. Park, “The Present Status and Activation Plan for Operating the Counseling Room of the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Gyeonggi-do and Seoul-,” *The Korea Association of Child Care and Education*, Vol. 113, pp. 125-151, 2018. DOI : 10.37918/kce.2018.1.113.125
- [4] E.J. Kang, H.M. Yoo and J.Y. Yoon, “Improvement of childcare support for raising the level of childbirth and compatibility between work and family (V): A study on childcare support measures tailored to the region,”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 Education, 2016.
- [5] D.E. Hong and Y.S. Choi, “A Study on the Spatial Composition for Childcare Support Center in a Municipality,”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Spatial Design*, Vol. 13, No. 5, pp. 201-214, October 2018.
- [6] Y.H. Ahn, H.N. Seo, S.Y. Heo and H.J. Han, “A Study on Participation of Parents with Infants or Kindergartners in the Childcare Support Center and Their Needs,” *The Korean Journal Child Education*, Vol. 24, No. 1, pp. 229-246, 2015.
- [7] Y.H. Ahn, S.O. Hong, G.H. Kim, E.J. Seo, “Teacher’s Actual Condition of Community Connection and Needs for Child Care Support Center in Busan,” *Journal of Children’s Literature and Education*, Vol. 15, No. 4, pp. 247-271.
- [8] B.S. Lee, “A comparative study on the importance and satisfaction of childcare staff and parents for the service of the Comprehensive Childcare Support Center,” Doctor’s Papers, General Graduate School, Wooseok University. 2017.
- [9] K.M. Kim, “Development of an Evaluation Index of Childcare Support Projects in Support Centers for Childcare : A Delphi Survey Application,” *The Korea Association of Child Care and Education*, Vol. 119, pp. 27-51, 2019. DOI : 10.37918/kce.2019.11.119.27
- [10] Y.J. Lee, “The role of the Parenting Support Center and the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to create a parenting-friendly community,”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 Education*, Vol. 45, pp. 6-18, 2015.
- [11] C.H. Chung, “An Argument on the Effectiveness of Childcare Center Support Project of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The Korea Association of Child Care and Education*, Vol. 125, pp. 203-239, November 2020. DOI : 10.37918/kce.2020.11.125.203
- [12] Y.J. Lee and H.J. Cho, “Childcare support network model development research based on local community,”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 Education*, Vol. 2014, pp. 1-121, 2014.
- [13] <https://central.childcare.go.kr/cccf/community/data/DataSIPL.jsp?BBSGB=1312>
- [1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entral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Report on the results of the 2018 National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Project,” Central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2019.
- [15]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entral Support

- Center for Childcare, "Report on the results of the 2018 National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Project," Central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2022.
- [16] <https://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9025>
- [17] <https://m.munhwa.com/mnews/view.html?no=20210302MW162834981638>
- [18] http://www.ddmnews.co.kr/news_gisa/gisa_view.htm?gisa_idx=77436
- [19]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entral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Report on the results of the 2018 National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Project," Central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2020.
- [20]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entral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Report on the results of the 2018 National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Project," Central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2021.
- [21] K.M. Yun, "Exploration of the Role and Functions of Comprehensive Childcare Support Centers : Focused Interviews with Childcare Specialists and Center Directors on Integrated Childcare." *Journal of the Edutainment*, Vol. 5, No. 4, pp. 141-153. 2023.
- [22] J.H. Woo, "A Study on Actual Conditions of Community Connection Education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12, No. 6, pp. 195-214, 2007.
- [23] S.H. Lee and A.R. Mo, "A search for difficulties in community-linked activities for children at daycare centers," *Korean Journal of Coaching*, Vol. 10, No. 2, pp. 143-156, 2017.
- [24] W.Y. Kwon and G.E. Kim, "Research Trends in integrated Community Care Systems : A Scoping review,"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10, No. 2, pp. 225-236, 2024. DOI : 10.17703/JCCT.2024.10.2.225
- [25] H.J. Han, "Exploring Ways to Establish Educational Governance to Connect Schools and Local Communitie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Vol. 13, No. 5, pp. 3555-3570, 2022. DOI : 10.22143/HSS21.13.5.247
- [26] K.H. Yeo and Y.M. Ko, "Status and demand of parents' use of services at the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The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2015, pp. 531-531, 2015.
- [27] M.J. Kang, J.I. Kwak and H.J. You, "Basic Research for Developing Regional Based Child-rearing Support Program," *The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Vol. 12, No. 3, pp. 71-94, 2008. DOI : 10.16978/ecec.2017.13.03.004
- [28] J.W. Min, "Parenting information utilization status of infants and toddlers and support plans for utilization,"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 Education Childcare Policy Forum*, pp. 16-26, 2014.
- [29] M.S. Lee, "Parent Child Caring Support Suggestions Focused on Local Community Demand for Nurtur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Vol. 12, No. 5, pp. 389-409, 2008.
- [30] B.R. Kim, "The current status and activation plan of the family nurturing support projects of support centers for childcare: focusing on childcare support centers in Seoul."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2017. DOI : 10.23169/cau.000000197877.11052.0000569
- [31] Y.S. Yang, "A Local Educare Information Center Program for Comprehensive Day Care Service," *The Korea Association of Child Care and Education*, Vol. 35, pp. 283-314, 2003.
- [32] E.J. Kim, H.J. Yeon, and Y.K. Lee, "A Study on the Operational Status of Locally Oriented Family Nurturing Support Projects: with a Focus on the Operational Cases of the Child Care Support Center of Jinju City,"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Vol. 11, No. 1, pp. 209-230, 2015. DOI : 10.14698/jkce.2015.11.209
- [33] H.J. Lee, "A Case Study on Education Service for Professional Competency of the Lifelong Educator," *Journal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Vol. 8, No. 2, pp. 215-236, 2012. DOI : 10.26857/JLLS.2012.08.8.2.215
- [34] G.E. Yuk, E.J. Kang, "Action Research for Picture Book Parenting on Small Group Class in a Child Care Support Center," *Journal of Children's Literature and Education*, Vol. 17, No. 4, pp. 269-293, 2016. DOI : 10.22154/JCLE.17.4.12
- [35] J.A. Song and W.S. Lim, "A Study on How to Establish the Talent Donation System in a Community," *The Journal of Korean Policy Studies*, Vol. 12, No. 4, pp. 271-288, 2012.
- [36] D.Y. Soon, "A Study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f the private sector for disaster management,"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Vol. 16, No. 4, pp. 171-179, 2016.
- [37] K.Y. Eun, M.W. Kim, M.J. Park, H.K. Woo and S.N. Lee. "Study on Role of Child-rearing

Support in Educare Information Center,” *The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Vol. 1, No. 11), pp. 43-66, 2006.

[38]D.G. Lee, “Operational status of the Central and Metropolitan City of Child Care Support Center,” *The Korea Association of Child Care and Education*, Vol. 18, pp. 325-346, 1999.

[39]M.J. Kim and N.H. Kim, “A survey on the status of use, satisfaction, and needs for improvement of parents who use toy libraries: focusing on the Seongnam Aisarang Playground,”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Conference Data*, Vol. 2018, pp. 211-211, 2018.

※ 이 논문은 2024년도 서울신학대학교의 연구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